

호랑이 '롯데 징크스' 깨라

KIA, 올 시즌 3승1무7패 롯데와 시즌 최종전 등 5경기 남아 내일부터 안방서 3연전...정규시즌 우승 위해 '천적' 넘어야



KIA 타이거즈의 '우승'을 롯데 자이언츠에 묻는다.

KBO가 지난 17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정규시즌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 미편성 50경기과

우천 지연 등으로 인해 재편성이 필요한 52경기 등 총 102경기가 새로 편성됐다.

KIA는 9월 25일 롯데를 상대로 홈 최종전을 치른다. 시즌 최종전 상대도 롯데다. KIA는 9월 28일 롯데 안방으로가 2024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KIA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하고, 한국시리즈에 맞춰 느긋하게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시즌 막판 일정을 소화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순위 싸움이 진행된다면 홈과 시즌 최종전 상대로 만나는 롯데와 삼일승 승부를 할 수도 있다.

KIA는 올 시즌 유독 롯데에 약했다.

1위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KIA지만 SSG와 롯데와의 상대전적에서는 열세를 보이고 있다.

SSG와는 12번 만나서 4승 8패, 0.33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는 3승 1무 7패(승률 0.300)로 성적이 더 좋지 못하다. 특히 '1무'의 충격이 컸다.

KIA는 6월 25일 원정경기에서 4회초 14-1의 리드를 잡고도 5시간 20분의 연장 혈투 끝에 15-15 무승부를 기록했다.

5월 원정길에서는 최하위에 있던 롯데를 상대로 시즌 첫 스윙패를 당하는 등 올 시즌 사직은 악몽의 장소가 됐다.

여기에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팀 역시 롯데다.

18일 LG와 15차전을 치른 KIA는 두산, KT와

도 앞서 15번 맞대결을 가지면서 '마지막 승부'를 남겨뒀다.

하지만 롯데, 키움과는 11차전을 소화하면서 앞으로 5경기를 더 치러야 한다.

당장 20일부터 홈에서 열리는 주중 3연전 상대가 롯데다.

KIA는 타격 하락세 속 격정 많았던 잠실 원정에서 LG를 상대로 '2위 강세'를 이어가면서 1위 싸움에 우위를 점했다. 분위기를 이어 1위 독주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천적' 롯데를 만나게 됐다.

앞선 악몽에서 벗어나 1위 팀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다.

한편 잔여경기 일정 편성 이후 8월 29일까지 우천 지연으로 인해 경기가 열리지 못할 경우, 우선 발표된 일정의 예비일에 취소된 경기가 편성된다.

예비일이 없으면 9월 1일 이후 동일 대진이 있는 경기의 경우 대진 두 번째 날 더블헤더가 열린다.

다음 날 경기가 동일 대진이 아닐 경우에는 ▲동일 대진 두 번째 날 더블헤더 ▲추후 편성 순으로 취소된 경기가 치러진다.

더블헤더 1차전 개시시간은 평일 오후 3시, 토요일 및 공휴일 오후 2시. 2차전은 평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5시에 시작한다.

1차전이 취소되거나 일찍 끝나면 2차전은 기존 경기 예정시간에 개시한다.

1차전이 평일 기준 오후 5시 50분, 토요일 및 공휴일 기준 오후 4시 20분 이후에 마무리되면 경기 종료 최소 40분 뒤 2차전이 시작된다.

예비일, 더블헤더 일정 등을 포함해 한 팀은 최대 9연전까지만 치를 수 있고, 월요일(9월 2·9·16·23일)에는 더블헤더가 편성되지 않는다.

한편 우천 지연으로 연기되는 경기가 포스트 시즌 시리즈와 관계없는 팀의 대진일 경우,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의 이동일이나 포스트시즌 기간에도 경기가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4시즌 KBO리그 잔여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롯데와 5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KIA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주중 3연전에서 '최연소 30-30' 주인공 김도영을 앞세워 '천적' 관계 정리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 제공)



창단 후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 광주FC가 9월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일본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상대로 엘리트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광주FC 제공)

9월 17일 광주서 아시아챔스 엘리트 경기...중국·말레이·태국 팀과도

광주FC가 9월 17일 일본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상대로 역사적인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첫 경기를 치른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AFC하우스에서 2024-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ACLE의 리그 스테이지 조추첨식을 진행했다.

아시아 대륙 상위 24개 클럽이 참가하는 ACLE에는 광주FC와 함께 지난 시즌 'K리그1 우승팀' 울산HD, '코리아컵 우승팀' 포항스틸러스 등 K리그 3개 팀도 포함됐다.

광주는 지난 시즌 K리그1 3위를 기록하면서 ACLE 플레이오프 티켓을 얻었고, 지난 4월 호주 A리그 센트럴 코스트가 ACLE 출전권을 확보하면서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고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ACLE 리그 스테이지는 팀별로 홈 4경기, 원정 4경기 등 총 8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포트에서 4팀, 2포트에서 4팀씩 만나게 된다.

이번 추첨 결과 광주는 9월 17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상대로 대망의 ACLE 1차전을 갖는다.

또 상하이 선화(중국), 조호르 다를 타짐(말레이시아),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와 홈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광주의 ACLE 홈경기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광주는 일본과 중국 원정에도 나선다. 첫 원정경기는 10월 1일 일본 가와사키 프론타레를 상대로 진행된다. 광주는 또 빗셀 고베(일본), 상하이 하이강-산둥 타이산(이상 중국)의 안방으로가 대결을 갖는다.

ACLE 리그 스테이지는 9월 17일 1차전을 시작

으로 내년 2월 19일까지 8차전이 진행된다. 리그 스테이지 결과에 따라 동·서아시아 리그 각각 상위 8개 팀이 16강에 진출한다.

광주와 함께 ACLE 우승에 도전하는 울산과 포항은 상하이 하이강, 비셀 고베, 산둥 타이산, 가와사키 프론타레와 홈에서 대결한다. 그리고 조호르 다를 타짐, 부리람 유나이티드, 요코하마 F.마리노스, 상하이 선화를 상대로 원정경기를 치른다.

한편 2024-25 AFC 챔피언스리그2(ACL2) 그룹 스테이지에는 32개 클럽이 참가해 4개 팀씩 8개 조로 나눠 홈 앤 어웨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승부한다.

지난 시즌 K리그1 4위팀인 전북현대가 ACL2에 참가해 각 조 상위 2개 팀에게 주어지는 16강 티켓을 노리게 된다.

전북은 셀란고르 FC(말레이시아), 무앙통 유나이티드(태국), 다이남익 허브 세부 FC(필리핀)와 H조에 편성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7일 영국 웨일스의 스완지닷컴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완지시티와 프레스턴 노스엔드와의 2024-2025시즌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 홈 경기에서 스완지시티 엄지성(가운데)이 공을 몰고 있다. (스완지시티 제공)

엄지성 '결승골 PK 유도' 활약

스완지시티, 프레스턴 노스엔드에 3-0 완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스(2부) 스완지시티의 엄지성이 시즌 두 번째 리그 경기에서 결승골로 이어진 페널티킥을 유도해 냈다.

스완지시티는 17일 영국 웨일스의 스완지닷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 홈 경기에서 프레스턴 노스엔드에 3-0으로 승리했다.

매트 그라이스가 전반 40분 페널티킥 골을 넣어 스완지시티에 승리를 안겼다.

엄지성이 이 페널티킥을 유도해 승리로 향하는 징검다리를 놔다.

라인을 넘기 직전의 공을 엄지성이 가까스로 크로스로 연결하자 이를 막으려던 수비수가 손을 뻗어 핸드볼 파울을 범했고, 주심은 주저하지 않고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광주 금호고 출신의 엄지성은 K리그1 광주FC에서 활약하다 지난달 스완지시티에 입단하며 유럽 무대에 올랐다.

리그 데뷔전(0-1패)에서 후반 45분 교체되며

거의 풀타임을 소화한 엄지성은 이어진 카라바오 컵(리그컵) 1라운드에서는 첫 도움을 올려 팀의 3-1 승리에 이바지한 바 있다.

이날 스완지 유니폼을 입고 치른 3번째 경기에서는 팀을 시즌 첫 승리로 이끄는 플레이를 펼쳐 보였다.

엄지성이 시즌 초반 팀 내 입지를 굳혀가는 모습이다.

엄지성이 후반 12분 교체된 가운데 스완지는 후반 16분 엄지성 대신 들어간 아짐 압둘라이의 추가골에 후반 38분 잔 비포트니크의 썬기골까지 터지면서 여유롭게 승리했다.

부상으로 1라운드에서 빠져 있던 스톡시티의 배준호는 이날 교체로 시즌 첫 경기를 소화했다. 스톡시티는 왓퍼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0-3으로 졌다. 시즌 첫 패배다.

배준호는 팀이 0-2로 뒤지던 후반 18분 엠레 테즈겔과 교체 투입돼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뛰었다. /연합뉴스